

보름달물·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일부 해역에 발령되었던 보름달물해파리 및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1월 6일(월) 14시부터 해제*한다고 밝혔다.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완전히 해제되었다.

* 주의단계 특보 해제 지역 : (보름달물해파리) 경남 고성 자란만·거제해역
(노무라입깃해파리) 전남 전 해역, 경남 남해군 해역

올해 해파리 특보는 6월 8일에 전북,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 주의단계(보름달물해파리) 특보가 처음 발령되어, 11월 6일까지 총 150일간 유지되었다.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전남과 경남 일부 연안에 작년보다 늦은 9월 초에 유입되면서 전년(130일)* 대비 20일 길었다.

	2022년	2023년
해파리 특보 발령기간	6. 21 ~ 10. 28 (130일)	6. 8 ~ 11. 6 (150일)
보름달물해파리 특보(주의단계) 최초발령일	6. 21	6. 8
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(주의단계) 최초발령일	7. 27	9. 13

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 즉시 ‘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지침’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,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에 16.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,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약 1,176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. 또한,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지자체 및 민간 조사·관찰(모니터링) 결과와 온라인 신고현황을 분석하며 해파리 출현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으며, 관련 정보를 기관 누리집(www.nifs.go.kr)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 해파리 특보는 작년보다 20일 정도 길었으나, 신고된 어업 피해는 없었다.”라며, “해파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써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, 내년에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·관찰과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30)
	수산자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정은주 (044-200-5542)
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권영규 (044-200-5250)
	해양레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안숙현 (044-200-5253)
	국립수산과학원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기후변화연구과(수산재해대응팀)	담당자	연구관 연구사 연구사	민병화 (051-720-2750) 이시우 (051-720-2752) 김경연 (051-720-2223)

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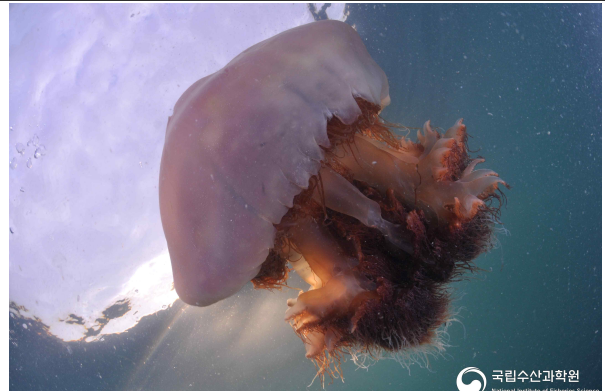
해파리 주의특보해제 해역 및 보름달물해파리 사진



<해파리 특보 해제 해역>



보름달물해파리



노무라입깃해파리